



가자 전투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6년 7월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에서 이틀째의 종일 군사작전(7월 7일 금요일)을 마쳤다. 이 날 12발의 카삼 로켓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왔다. 숫자는 줄었지만, 여젠이 아마스와 지아드의 겨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삼 미사일로 사망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직 없고, 교전 중에 한 군사(예우다 바살)만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의 십자 포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작전 중 40명의 무장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6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오늘은 또한 낙아산병 론 아라드가 추락하여 레바논에 붙잡힌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그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런던 지아철 역에서 알 카에다 무리가 폭탄 테러를 벌여 52명이 사망한 지도 1년이 되었다.

불과 몇 분 전에 아마스는 이스라엘 뉴스 고위 통신원의 야우(Yahoo) 메일을 통해 인질로 잡고 있는 길라드 샬리트 상병이 아직 무사하며, 아무 탈이 없음을 전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포로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2년 전 레바논에서 탄넨바움 이스라엘 대령을 인질로 400명의 포로를 교환한 것을 예로 들었다.

올메르트 총리는 납치범들과는 교섭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을 보였다. 이스라엘 국민 대부분도 그와 동의하였지만, 포로 교환에 찬성하는 이들(길라드의 아버지가 그런 것은 당연하지만)도 없진 않다.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에서 아마스 정치 지도자들을 64명이나 체포에 수감시켰다. 그들은 아직 테러 단체에 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들이 팔레스타인 국회의 대다수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한 라말라에서 3명의 납치범과 엘리아우 아세리의 살해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경찰 본부에 숨어 있었다. 이스라엘 특수 기동대의 두브다 바니와 두아피트 팀이 동 트기 전 건물을 둘러싸고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위협으로 그들을 양복시켰다.

이스라엘은 또한 제년을 떠나 자살 테러를 아려고 이스라엘을 양하고 있던 테러리스트를 검거했다. 군대와 경찰 병력들이 오렌지색 팔레스타인 통근 차량에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를 발견할 때까지 쇼르론 65번 고속도로는 차단되었다. 그는 체포되었고, 폭탄은 폭파되었다.

이스라엘의 연 군사공격은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카삼 로켓 미사일의 발사를 중지시킨다. 2. 카삼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시킨다. 3. 국경 아래 있을지 모를 다른 굴을 찾아내어 파괴한다. 4.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여 사살한다. 5. 아마스에 길라드 석방 압력을 가한다. 연 시점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그를 구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 주 이스라엘은 다리, 발전소, 정부 기관 등 기반 시설을 폭파하여 아마스에 압박을 가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격렬하고 복잡한 심리전을 빚고 있다. 난 가짜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복음 전도자 중 하나인 친구 S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 상황에 대한 그의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의 의견이 듣고 싶어져였다. S와 두 명의 아랍 사역자(F와 W)는 약 20명의 MBB(무슬림 출신의 성도)를 제자와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연제 가짜 전체를 통틀어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 뿐이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120명 정도이다.

S는 하나님께서 연제의 분쟁을 통해 이스마엘과 이삭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핵심적 문제를 풀어내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할 수 있었다는 데서 ‘자부심’ 을 느낀다. 그들은 능욕감과 패배감을 느끼기 일쑤였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걸 잃었음에도 ‘무언가를 얻었다’ 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S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을 양한 증오심에서라기 보다 명예를 살리기 위한 필요가 동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에게 아랍과 이스라엘 양측의 정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S는 요르단의 왕 압둘라가 아랍 국가들에게 테러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 것이나 올메르트 총리가 예루살렘 시장으로 있을 때 아랍인들과 겪은 것을 예로 들었다. S는 이슬람이 아랍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뿌리 깊은 거절감과 질투심에 대한 거짓 치료제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가짜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분석하는 ‘자아 비판’ 을 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외 내에서 비판에 광장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안다.

S의 말을 듣고 난 우리 이스라엘의 딜레마가 다시 떠올랐다. 우리는 ‘군영 잠인’ 군사 대응으로 잠재력을 보여야 하지만, 또 한편 아마스가 압박을 받을 만큼 충분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 이스라엘 군 통신원 알렉스 피시맨은 이렇게 비꼬았다. “우리는 테러가 더 일어나기를 부수길 만큼의 반격은 하지만, 그들의 기가 꺾일 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아 비판’ 이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젠 거의 국가적인 스포츠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이스라엘 측에 인질을 생각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집단’ 영벌을 가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지만 그건 비논리적인 소리다. 선거에 승리하여 팔레스타인 정부 집권당이 된 아마스가 남치를 인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병력의 ‘군영 있는’ 사용도 상대적인 문제다. 우리는 카삼 미사일과 자살 테러 폭탄, 남치에 의한 실제적 위협의 정도와 피해를 생각해야만 한다.

안편, 이스라엘의 실제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정착민들과 군대를 철수시킴으로써 그들과의 분명한 경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카삼 로켓 미사일과 남치 행위는 도발 행위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번 주에 12km로 범위가 넓어진 두 발의 이중 카삼 로켓 미사일이 아쉬켈론에 떨어져 위기는 고조되었다. 훨씬 많은 이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11만 명의 주민들이 위협에 빠졌기 때문이다.

기도제목:

1. 이 분쟁 가운데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파해지도록. 길라드 샬리트가 무사히 귀환하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죄한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양측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남으로 두 민족 가운데 복음이 더 확산되도록. 올메르트, 페레스와 알루스가 군사력과 잠재력을 책당이 발위할 수 있도록. 가자의 교전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도록.
2. 팔레스타인 신앙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S와 F, W의 보오를 위해. 귀한 MBB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M과 G를 위해.
3. 막 인쇄를 마치고 나온 나의 새 책 ‘성경은 그 땅에 대해 진정 무엇이라 하는가?’ 가 은혜 가운데 유통될 수 있도록.
4. 올 여름 ‘솔드 아웃(Souled Out)’ 청소년 수련회에 커다란 열매가 있도록. 난 어제 첫날 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특권을 얻었는데, 말씀을 마친 후 자유와 애방의 기도 시간에

T가 내게 친구인 이스라엘 군인을 데려 왔다. 난 그에게 예슈아를 메시아로 영접했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고, 난 그에게 지금 원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했다. 이 귀한 젊은이 Y를 위해 기도하자. 그가 신앙 안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5. 우리의 새 예루살렘 모임 아아바트 예슈아(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고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의 전도와 제자 훈련, 예언적 찬양 사역에 끊임없는 축복과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6. P가 아쉬돔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하도록. 그 지역 랍비들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후원하여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때, 하나님이 풍성이 채우시기를.

7. 베티의 어머니와 나(아셰르)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다음 주 짧게 미국에 있는 그분들을 방문할텐데, 여행 가운데 안전이 지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번역: 고병연